

금강반 학습 계획

2019년 11월9일

담임: 류민희

| 시간 | 수업내용 | 교재 및 장소 |
|----------------------|--|------------------------|
| 1교시 (9:30~10:00) | MBTI와 직업 금강반 퀴즈 #6 | 학습계획 P.1-2 학습계획 P,3 |
| 2교시 (10:00~11:00) | <읽기와 이해하기> 실향민과 냉면 | 학습계획 P.4-7 |
| (11:00~11:20) | 점심 | 카페테리아 |
| 3교시 (11:20~12:00) | <한국사> -임진왜란 후 광해군의 복구정책과 중립외교 -병자호란 | 한국사 자료 P.1~6 |
| 4교시 (12:00~12:40) | 사물놀이 | 강당 |

*숙제 1. 학습계획 P.8~12 금강반 단어 #7

2. 오늘 배운 한국사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 오세요.

*알림: 다음 주에는 고급과정 글쓰기 수업이 있습니다.

MBTI의 성격과 직업

| | | | |
|--|---|---|--|
| ISTJ 세상의 소금형 한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해내는 사람들 | ISFJ 임금뿔편의 권력형 성실하고 온화하며 협조를 잘함 | INFJ 예언자형 사람과 관련된 뛰어난 통찰력을 가짐 | INTJ 과학자형 전체적인 부분을 조합하여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들 |
| ISTP 백과사전형 논리적이고 뛰어난 상황 적응력을 가짐 | ISFP 성인군자형 따뜻한 감성을 가지고 있는 겸손한 사람들 | INFP 전디르크형 이상적인 세상을 만들어 가는 사람들 | INTP 아이디어 뱅크형 비평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뛰어난 전략가들 |
| ESTP 수완좋은활동가형 친구, 운동, 음식등 다양함을 선호 | ESFP 사교적인유형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우호적인 사람들 | ENFP 스파크형 열정적으로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사람들 | ENTP 발명가형 풍부한 상상력을 가지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사람 |
| ESTJ 사업가형 사무적, 실용적, 현실도모적인 일을 많이 하는 사람 | ESFJ 친선도모형 친절과 현실감을 바탕으로 타인에게 봉사하는 사람 | ENFJ 연변능숙형 타인의 성장을 도모하고 협동하는 사람 | ENTJ 지도자형 비전을 가지고 사람들을 활력적으로 이끌어 감 |

◆ 각 유형에 어울리는 직업

- ISTJ : 회계사 (accountant), 건축가(architect), 사무직(office worker)
- ISFJ : 교사, 의료직(medical field), 사무직, 비서직(secretaries)
- INFJ : 예술가, 작가(writers), 성직자(preachers)
- INTJ : 의사, 과학자, 교수
- ISTP : 엔지니어, 법률가(lawyers), 물리치료사(physical therapist)
- ISFP : 성직자, 의료직, 예술가
- INFP : 심리상담가(psychologist), 교직, 작가

- INTP : 연구원(researcher), 순수과학, 이론가(thinker)
- ESTP : 경찰, 엔지니어, 레크리에이션 강사(instructor)
- ESFP : 서비스직, 디자이너, 간호사
- ENFP : 작가, 예술가, 목회자
- ENTP : 발명가, 저널리스트, 과학자
- ESTJ : 관리자(administrator), 사업가, 행정가
- ESFJ : 교직, 서비스업, 사회복지사(social worker)
- ENFJ : 교사, 심리상담사, 성직자
- ENTJ : 경영자, 정치인, 연설가, 컨설턴트

금강반 퀴즈 #6

틀린 갯수: _____

이름: _____

* 각 단어의 뜻을 영어로 적으세요.

1. 긍정적: _____ *긍정적의 반댓말(extra point: 한국어로): _____

2. 영향: _____

3. 자극: _____

4. 도전: _____

5. 모국어: _____

6. 기억력: _____

7. 오감 : _____

8. 창의적: _____

9. 효과적: _____

10. 활발히(활발하게): _____

* <보기>에서 알맞은 단어를 골라 알맞게 고쳐 문장을 완성하세요. (sentence completion)

| |
|--------------------------------------|
| <보기>활용하다 좌우하다 개발하다 증진시키다 뜻하다 |
|--------------------------------------|

11.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_____.

12. 뇌를 잘 _____ 위한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13. 새로 _____ 약 덕분에 할머니께서는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오셨다.

14. 이 정책은 남북한 간의 관계를 _____ 것이다.

15. 백화점에 갔다가 _____ 않게 성인이 된 어릴 적 친구를 만났다.

< 읽기 >

신향민과 냉면

아버지는 새파란 청년 시절 전쟁통에 북한군으로 남한에 내려왔다가, 북쪽으로 돌아가는 대신 남한을 선택하신 분이다. 북한의 가장 북쪽 끝 함경북도 출신이 어쩌다가 대한민국 가장 남쪽 끝인 제주도 여자를 만나서 서귀포에 정착했다. 언어, 풍습, 문화 등 모든 것이 다른 민족끼리의 결합이나 다름없었다. 어머니가 춥다고 덜덜 떠는 날씨가 아버지에게는 적당한 기온이었고, 어머니가 살 만한 따뜻한 봄날이 돌아오면 아버지는 벌써 더위를 탈 정도였다.

아버지가 가장 즐기는 외식 메뉴는 냉면이었다. 그 무렵 우리가 살던 서귀포에는 ‘육지 음식’인 냉면집이 두 곳밖에 없었는데, 다 아버지처럼 북한 출신이 운영하는 식당이었다. 어쩌다 육지에서 사람들이 찾아와 가끔씩 아버지에게 식사 대접을 할 때면, 그 때마다 아버지가 예외 없이 선택하는 음식이 냉면이었다. 심지어 점심, 저녁 모두 냉면을 택한 적도 있었다. 돈을 주고 사 먹을 가치가 있는 음식은 오직 냉면뿐인 것처럼.

냉면을 먹던 아버지의 표정을 지금도 기억한다. 식사 전에는 살짝 긴장되고 설레는, 식사 중에는 아무 말 없이 엄숙한 의식을 치르듯 냉면 먹기에만 열중하는, 식사가 끝난 후에는 살짝 만족스럽게 입 꼬리를 올리던. 그런 아버지의 표정은 일상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뜻밖이었다. 평소 아버지는 항상 말없이 묵묵히 주어진 일만 하는 근면 성실한 분이셨기 때문이다. 가장으로서 권위를 제대로 행사한 적도, 남에게 자기주장을 강하게 내세우는 일도, 크게 소리 내어 웃어 본 적도 없었다. 그런 분이 냉면에 관해서만큼은 단호한 자기주장과 엄청난 몰입과 굉장한 만족감을 보일 때마다, 난 낮설고 의아했다. 대체 냉면이 뭐길래.

서울로 올라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버지 같은 실향민이 한둘이 아님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냉면이야말로 실향민들의 ‘소울푸드’였다. 어린 시절 즐겨 먹던 고향의 맛, 정신적 허기마저 충족되는 영혼의 음식이 소울푸드 아닌가. 더구나 그 고향이 죽기 전에 다시 못 가 볼지도 모르는 땅이고 부모 형제와 이웃의 생사마저 알 길이 없다면, 소울푸드를 향한 애착이 오죽하겠는가.

한번은 한 냉면집에서 강한 북한 억양으로 노인 분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듣다가 웃음을 참느라 고생한 적이 있었다. 세상에, 평소에 점잖을 것만 같은 그 노인 분들이 식당에서 목청 높여 논쟁을 벌이는 주제는 다름 아닌 “이 집보다 ○○ 냉면집이 맛있다,” “아니다. ○○ 냉면집은 옛날 맛이 아니다.”라는 게 아닌가.

주위 사람들에게 그날 목격한 장면을 이야기했더니, 그 정도의 논쟁은 아무것도 아니란다. 식초를 면에 치는가 국물에 치는가, 계란 노른자를 먼저 먹는가 나중에 먹는가, 평양 냉면이 최고인가 함흥 냉면이 최고인가 등등, 고향을 북한에 두고 온 사람들 사이에서 냉면을 제대로 먹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는 해도 해도 끝없는 논쟁거리라는 것이다.

북한과의 교류가 활발하던 시기에 평양을 다녀 온 남쪽 사람들 사이엔 또 다른 이야깃거리가 생겨났다. 옥류관 냉면이 기대한 것만큼 맛이 없고 지나치게 심심하더라는 의견과, 남쪽에서 변한 냉면 맛에 길들여져서 그렇지 옥류관이야말로 냉면 본래의 맛이라는 반대 의견이 그것이다. 언젠가 옥류관 냉면을 맛보고 싶다. 그걸 먹다 보면 올 아버지 얼굴, 실향민 할아버지들의 모습들이 떠올라 울컥 눈물을 쏟아낼지 모르지만.

< 글의 이해 >

이름: _____

- 글의 내용과 맞는 문장은 ○, 틀린 문장은 x 표시를 하세요.

1. 글쓴이의 부모님은 북한에서 내려오신 실향민이다. ()
2. 아버지가 냉면을 좋아하신 이유는 제주도의 더운 날씨 때문이다. ()
3. 아버지는 일상 생활에서 늘 자기주장이 강한 편이다. ()
4. 북한 출신의 실향민들은 냉면의 맛과 먹는 방법에 관심이 많다. ()
5. 글쓴이는 북한 옥류관에서 먹었던 냉면 맛을 잊지 못한다. ()

- 글쓴이가 냉면을 실향민의 ‘소울푸드’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글에서 찾아 적어 보세요.

- 평소 아버지의 태도를 나타내는 문장과 냉면을 드실 때 아버지의 태도를 나타내는 문장을 찾아 적어 보세요.

➤ 평소 아버지의 태도:

➤ 냉면을 드실 때 아버지의 태도:

- 아버지에게 냉면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 보세요.

- 여러분의 소울푸드는 무엇인가요? 소울푸드를 먹을 때 어떤 느낌이 드나요?

<숙제>

<금강반 단어 리스트 #7 > 이름: _____

- 오늘 배운 실향민과 냉면을 다시 읽고, 다음 단어의 뜻과 예문을 공부하세요.

- 밑줄 친 빈 칸에 해당 단어를 넣어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1. 전쟁통: 전쟁이 일어나는 동안, in the middle of war

예) 전쟁통에 헤어졌던 부부가 70년 만에 만났다.

2. 출신: 고향이나 지역을 나타내는 말, * ~출신이다. : ~from

예) 그 사람은 대구 출신이어서 대구 사투리가 심하다.

3. 풍습: custom and manner

예)그 화가는 한국의 고유의 풍습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4. 결합: 둘 이상의 사물이나 사람이 합쳐져 하나가 됨. union, combination

예) 이혼했던 부부가 화해한 후 다시 결합했다. / 물은 산소와 수소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4.육지: 땅, land

예) 바다와 육지의 비율은 7대 3이다.

5.운영: operation, management

* 운영하다: operate, manage

예) 윌리 왕카는 초콜릿 공장을 운영한다.

6.대접하다: treat, serve

예) 집에 초대한 손님은 잘 대접하는 것이 예의이다.

7.엄숙한: 분위기나 태도가 위엄이 있는, solem,

예) 할아버지의 장례식은 엄숙한 분위기에서 치루어 졌다.

8. 의식: 정해진 방식에 따라 치르는 행사, ceremony * 의식: consciousness

예) 이번 일요일에 교회에서 중요한 의식이 있으니, 정장을 입고 와야 한다.

9. 열중하다:한 가지 일에 정신을 쏟다, be engrossed in

예) 재민이는 축구 경기에 열중하는 바람에 어머니께서 부르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10. 뜻밖이다: 기대하지 않다, be unexpected, be surprising * 뜻밖에: unexpectedly

예) 서경이가 숙제를 안 해 오다니 정말 뜻밖이다.

예 2) 갑자기 벨이 울려 나가보니 뜻밖에 손님이 와 있었다.

11. 가장: 가정을 이끌어 가는 사람, head of household, breadwinner

예)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시자, 그 친구는 어린 나이에 그 집의 가장이 되었다.

12. 자기주장: 스스로의 생각과 의견을 내세움, self-assertion

예) 유진이는 평소에 자기주장이 강한 편이다.

13. 단호한: 태도가 망설임없이 엄격한, firm, determined

예) 선생님께서 책을 읽으라고 하자 친구는 단호하게 “싫어요,”라고 대답했다.

14. 몰입: 깊이 파고들거나 빠짐, be absorbed in

예) 진이는 책 읽기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밥 먹는 것도 잊어 버렸다.

15. 의아하다: quizzical, strange

예) 친구가 갑자기 울면서 교실에서 뛰쳐 나가자 헤린이는 의아한 듯이 쳐다 보았다.

16. 실향민: 고향을 잃고 떠난 사람, displaced person

예) 북한에서 온 실향민들은 함께 냉면을 먹으면서 슬픔을 달랜다.

17. 고향: 태어나고 자란 곳, hometown

예) 선생님께서는 고향을 떠나 먼 나라에서 살게 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고 하셨다.

18. 허기: 배고픔, hunger * 허기가 지다: get hungry

예) 주형이는 갑자기 허기가 져서 자동판매기에서 초콜릿을 사 먹었다.

19. 충족되다: 바라는 대로 채워지다, be satisfied

예) 늘 그 친구에 대해 궁금했었는데, 그 친구와 친해져서 마침내 호기심이 충족되었다.

20. 생사: 삶과 죽음, 살았는지 죽었는지 여부, life and death

예) 전쟁통에 헤어져서 생사를 알지 못하던 친구를 길에서 우연히 만났다.

21. 애착: 애정과 집착, attachment

예) 할아버지께서는 하나 밖에 없는 손자에 대한 애착이 대단하시다.

22. 오죽하면: 얼마나 힘들면, understandably

예) 오죽했으면 빵을 훔쳤을까! (=얼마나 배가 고팠길래 빵을 훔쳤을까!)

예 2) 오죽했으면 태유가 화를 냈겠니(=얼마나 놀려댔으면 그 애가 화를 냈겠니)

23. 논쟁: argument * 논쟁을 벌이다: argue

예) 그 친구들은 오늘도 쓸데없는 논쟁을 벌이고 있다.

24. 억양: accent

예) 중국에서 온 친구는 영어를 말할 때 중국어 억양이 남아 있다.

25. 목격하다: 눈으로 직접 보다, witness

예) 경찰에서 자동차 사고를 목격한 사람을 찾고 있다.

26. ~ 거리: item * 논쟁거리, 이야깃거리, 먹거리,

예) 점심시간에 재미있는 이야깃거리가 없을까? 맛있는 먹거리는 없을까??

27. 교류: 서로 주고 받다, interchange

예) 남한과 북한이 활발하게 교류하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

28. 길들여지다: be tamed * 길들이다: tame

예) "이리와서 나와 놀지 않겠니? 난 지금 너무 쓸쓸하단다."

"하지만 나는 너와 함께 놀 수가 없어. 난 아직 길들여지지 않았거든."
